

# 하상주보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2년 9월 25일  
제1915호

주임 신부: 김태진 베네딕토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 회장: 강세원 바오로

연령 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스: 703 968 3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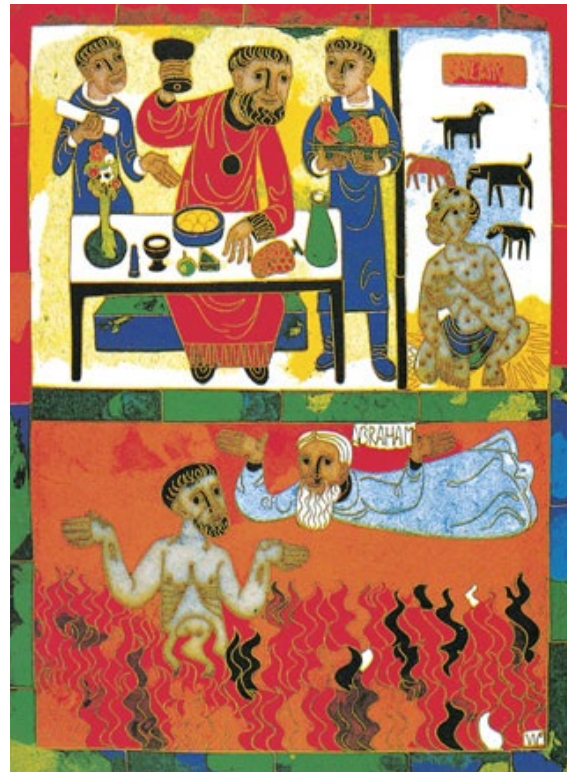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이메일: sthasang@gmail.com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루카 22,19)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 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루카 16,25)



〈부자와 라자로〉, 에기노 바이너트 작

## 연중 제26주일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다해)

제 1 독 서 아모 6,1ㄱㄴ.4-7 | 이제 흥청거림도 끝장나고 말리라

화 답 송 시편 146(145) |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제 2 독 서 1티모 6,11ㄱㄴ-16 |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계명을 지키십시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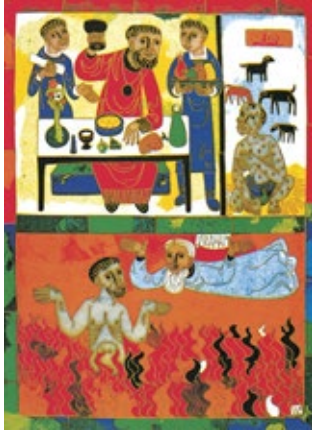
○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우리도 그 가난으로 부유해지게 하셨네.◎

복 음 루카 16,19-31 | 너는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 성화 해설

## 우리 모두 더불어 살아야 할 하느님 백성

작품의 상단에 있는 부자는 삶의 흥겨움에 취하여 문밖에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이 세상을 떠난 부자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외면한 죄로 지옥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부자는 천상에 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간절한 자제로 자비를 간청하였지만 모든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다.



<부자와 라자로>, 에기노 바이너트 作

오늘 복음에서, 세상의 부자들에게 이 비유의 부자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가난한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고 날마다 호의호식(好衣好食)하며 즐겁게 살던 어떤 부자가 죽은 후에 지옥에서 고통당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통념으로 부자는 하느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운명이 역전되는 양상은 가난뱅이 라자로의 등장으로 극대화됩니다. 종기 투성이의 라자로를 개들이 핥는 모습은 그의 신세가 얼마나 비참한지 충분히 상상할 만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죽었을 때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갑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저 세상 낙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자’라는 사실 자체 때문에 저 세상에서 운명이 역전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비유 속에 나오는 부자가 특별히 악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가난한 이웃을 외면하고 자기와는 전혀 별개의 인간으로 답을 치고 살았다는 사실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있는 라자로와 부자의 거리는 이미 살아생전에 넘을 수 없는 강으로 존재했던 것만큼 커 보입니다.

혹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부의 차이는 당연한 것이고, 내가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잘 사는데 무슨 문제냐고 항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서의 가르침은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야 할 하느님 백성임을 깨우쳐 줍니다. 흥청거리는 지도자들을 경고하는 아모스 예언자의 말씀이나, 안수를 통해 하느님의 영을 받은 교직자에게 훈시하는 디모테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이나 모두 지도자들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재력과 지력, 권력이 많고 지도층에 속한 사람일수록 가난한 이웃을 살피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갈 책임이 크다는 것을 깊이 느껴야 할 것입니다.

<최혜영 엘리사벳 수녀의 성화 해설(부분), 전문 보기 <http://jubo.catholic.or.kr/2004/040926/menu1.html>>

## †복음 묵상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는 현세의 부유함과 가난함이 각각 하느님의 축복과 저주의 결과라 믿어 왔던 구약 시대의 이해를 수정하고(19-26절), 회개와 구원의 길이 성경 말씀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27-31절).

비유 속 라자로의 언뜻 무력하고 수동적인 인물로 보이지만, 그의 이름은(엘아자르: ‘하느님께서 도우신다.’는 뜻) 그가 하느님께 희망을 두며 가난하고 고된 삶을 성실히 살아 낸 의인임을 드러냅니다. 반면에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면서도 대문 앞 라자로를 계속 외면하였던 부자의 삶은, 제1독서에서 아모스 예언자(기원전 760-750년 무렵 활동)가 꾸짖으며 심판을 경고한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의 향락과 사치를 빼닮았습니다. 부자의 삶은 겉으로는 호화롭게 보이지만, 하느님께서 말기신 재화를 자신만을 위하여 쓰고 도움이 간절한 이를 외면한 까닭에 영원한 상실과 절망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부자는 자신처럼 향락만 꾀하는 형제들을 돌이킬 유일한 방법이 특별한 이적이라 생각하지만, 그는 또 틀렸습니다. 믿음이 없고 회개할 의지도 없는 이에게 이적은 특이한 체험 정도에 그칠 뿐, 그의 삶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참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힘은 이적이 아니라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 곧 성경 안에 이미 들어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성경을 읽고 하느님 말씀을 가슴에 새겨, 거룩한 삶을 다짐하고 실천에 옮기는 그 노력 안에 우리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가난한 이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주님께 꾸어 드리는 이, 그분께서 그의 선행을 갚아 주신다.”(잠언 19,17)라는 구절을 마음에 새겨 실천한다면, 비유 속 부자와 같은 이기적인 삶은 피할 수 있겠지요. 제2독서의 바오로 사도의 말처럼, ‘의로움과 믿음,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며 훌륭히 싸워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강수원 베드로 신부>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제108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9월 25일) 담화문(부분)

## “이주민과 난민과 함께 미래 건설하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여정’의 궁극적인 의미는 우리의 참 본향,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하느님 나라를 찾는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에 싸여 오실 때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인 이들에게는 이미 하느님 나라가 와 있지만, 그분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이 세상과 인류의 미래에 여전히 종말론적이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서 발견됩니다.”

“우리는 …… 의로움이 깃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베드 3,13). 의로움은 하느님 나라를 세우는 데에 필요한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정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모든 이가 흡족할 수 있도록(마태 5,6 참조) 인내와 희생과 결단으로 정의를 다져야 합니다. 하느님 나라의 의로움은, 돌아가시고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좋은’ 상태로 되돌아가고 인류가 다시 한번 ‘참 좋은’ 상태가 되도록 하는(창세 1,1-31 참조) 하느님의 조화로운 계획이 완성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조화가 충만하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온갖 형태의 불평등과 차별을 없앨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구원, 곧 그분 사랑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누구도 제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 계획은 본질적으로 모든 이를 포함하고**

**실존적 변방에 사는 이들을 우선시합니다.**

**이들 가운데에는 수많은 이주민과 난민, 실랑민,**

**인신매매의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그들과 함께 건설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없다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힘없는 이들을 포용하는 것은**

**하느님 나라에서 온전한 시민이 되는 필수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특히 젊은이 여러분! 미래를 건설하는 데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협력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형제자매인 이주민과 난민과 함께 협력합시다! 오늘, 미래를 건설합시다! 미래는 오늘 시작되며 우리 각자에게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위한 하느님 계획이 실현될 수 있고 정의와 형제애와 평화의 하느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내려야만 하는 결정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미래 세대에게 떠넘길 수 없습니다.

### 기도

주님, 저희를 희망의 전달자가 되게 하시어,  
어둠이 있는 곳에 주님의 광채가 빛나고,  
절망이 있는 곳에 미래에 대한 확신이 다시 싹트게 하소서.

주님, 저희를 주님 정의의 도구가 되게 하시어,  
배척이 있는 곳에 형제애가 꽃피고,  
탐욕이 있는 곳에 나눔의 정신이 자라나게 하소서.

주님, 저희를 이주민과 난민과 함께  
또한 변방에 사는 모든 이와 함께  
하느님 나라의 건설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형제자매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깨닫게 하소서. 아멘.

**1 루카회 월례 회의(60대 본당 남녀 교우)**

- 일시 : 9월 25일(일) 오전 11:30 (B-3)

**2 요한회 월례 회의(50대 본당 남녀 교우)**

- 일시 : 9월 25일(일) 오전 11:30 (B-1,2)

**3 KoC 월례 회의**

- 일시 : 9월 25일(일) 오전 11:30 (B-4)

**4 토요일 신심 기도 및 미사**

- 일시 : 10월 1일(토) 오전 10:30 (첫 토요일 신심 미사)
- 파티마 사도직 기도회 : 오전 9시
- 토요일 신심 미사에 함께해 주시기를 청하며, 토요일 새벽 미사는 없습니다.

**5 구역 임원 교육**

- 일시 : 10월 2일(일) 오전 10:30 (B-1,2)
- 구역 임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6 병자 영성체**

- 일시 : 10월 7일(금)
- 신청 : 조영인 요셉 (703) 819-8138  
사무실 (703) 968-3010
- 10월 5일(수)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불우이웃 돕기 5K 걷기/달리기**

- 일시 : 10월 22일(토) 오전 8시
- 장소 : Burke Lake Park (Shelter A)
- 신청 : 오전 8시, 10시 미사 전후 성당 친교실/사무실
- 신청비 : 1인 \$15 / 2인 \$25 / 한 가족 \$30(3명)
- 문의 : 복지부장 김 소피아 (703) 314-0905  
※ 아침식사로 순두부 백반을 드립니다.

**8 페어팩스 메모리얼 파크 묘지 할인 및 구입 안내**

- 일시 : 10월 1일(토) 오전 10시 - 오후 12시
- 장소 : 페어팩스 메모리얼 파크 사무실
- 문의 : 홍의훈 요셉 연령회 회장 (703) 966-8206

**9 결혼 희년 미사 안내**

결혼 25주년(1997년), 50주년(1972년)이신 분들을 위해 교구에서는 기념 미사를 봉헌합니다.

- 일시 : 10월 16일(일) 오후 3시, 알링턴 주교좌성당 (주교님 집전)
- 신청 :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10월 3일(월)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세요.

**10 성 정하상 바오로 성상 건립**

- 본당 주보성인인 성 정하상 바오로 성인의 성상을 Fairfax Memorial Park에 세우고자 합니다. 성상 건립을 위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 약정서 및 납입금은 사무실에 봉헌해 주세요.
- **감사합니다** 성상 건립 납입 금액 : \$ 42,320

**11 청소년 견진성사 미사**

- 일시 : 10월 17일(월) 오후 7:30
- 교구장이신 마이클 버짓지 주교님께서 집전해 주십니다. 주교님의 공식 방문인 견진성사 미사에 주일학교(CCD, CYO)를 비롯한 모든 신자분들이 참여하여 주교님을 맞이해 주시고 견진성사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12 CYO 학생들을 위한 알링턴 교구 RALLY 행사**

- 일시 : 10월 23일(일) 오후 12시 - 오후 6시 (성당에서 오전 11시에 출발)
- 장소 : Bishop O'Connell High School
- 신청 : 9월 25일(일)부터 10월 9일(일)까지 학생 미사 후 하상관 교무실에서 신청 받습니다.
- 참가비 : 한 학생당 \$10 (티셔츠/저녁 포함)
- 문의 : 구아름 데레사 (703) 599-8869

**40시간의 기도**  
(The Forty Hours Devotion)

**YEAR ONE: REMEMBER**

교구 희년(50주년)을 준비하며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알링턴 교구 전체 본당에서 40시간 신심 기도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40시간의 중심에는 성체성사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는 이 위대한 성사 안에 실제로 현존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신심기도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의 현존을 느낍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새롭게 태어나는 은총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당은 **10월 26일(수)부터 28일(금)까지** 40시간 신심기도를 봉헌합니다. 40시간 기도 일정은 추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https://www.arlingtondiocese.org/fortyhoursdevotionschedule/>

**변형된 성물과 잘못된 신심에 대한 주의**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구입된 성물은 변형되거나 왜곡된 것이 많습니다. 목주와 기적의 메달, 스키퍼 등 제작처가 불분명한 성물 사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당 홈페이지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 감사드립니다.

효도 한마당 잔치가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완 야고보, 최정원 올리안나, 배경숙 엘리사벳, 김동표 로무알도, 황원균 알렉산더, 김돈현 미카엘, 지경수 요한, 김용현 요한, 루카회

### 체육관 사용 주의사항

- ▶ 체육관 사용 시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본당에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 ▶ 체육관 사용은 본당 사정상 지정된 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체육관 사용 시 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합니다.
- ▶ 사용 후 정리 정돈 및 청소가 되지 않으면 사용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2년 9월 18일(연중 제25주일)**

주일 헌금	\$ 6,111.00
교무금	\$ 8,660.00
교무금(신용카드)	\$ 4,850.00
감사 헌금	\$ 1,800.00
2차 헌금	\$ 2,444.00
온라인 봉헌	\$ 2,520.00
<b>합계</b>	<b>\$ 26,385.00</b>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버지니아 성정바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Fios Ch. 30

**9월 29일(목) 오후 5:00 - 6:00**  
**9월 30일(금) 저녁 8:00 - 9:00**  
**10월 2일(일) 오전 6:00 - 7:00**

1. 주일 강론
2. 세계 성당을 가다 : (7) 페루 리마 주교좌 대성당
3. 한국 교회사 : (6) 한국 최초의 사제 주문모 야고보 신부 1편

###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00 AM</li> <li>• 10:00 AM(교중미사)</li> <li>• 2:00 PM(학생미사)</li> <li>• 5:00 PM(청년미사)</li> </ul>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 목, 토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33%;">화, 금</th> <th style="width: 33%;">수</th> </tr> <tr> <td>• 6:00 AM</td> <td>• 7:30 PM</td> </tr> <tr> <td>• 7:30 PM</td> <td>• 11:00 AM</td> </tr> </table>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7:30 PM	• 11:00 AM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7:30 PM	• 11:00 AM						